

# VENTION &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 역사 속의 발명품

### 질레트의 안전 면도기

1895년 여름, 보스턴 시의 어느 여관에서 질레트라는 사나이가 시퍼런 면도칼을 가지고 바쁘게 수업을 짊고 있었다. '야야!' 비명과 함께 그의 턱에서 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면도칼에 베인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누구나 손쉽게 면도를 할 수 있는 안전 면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질레트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궁리하고 만들기를 좋아하였으나, 정규 기술교육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는 왕관 병마개 발명으로 유명한 윌리엄 페인처의 회사에 취직한 뒤 페인처의 성공담에 자극을 받았다. 자기도 발명으로 성공하겠노라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았다. 특허 출원도 여러 번 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빛을 보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다.

면도칼에 베이던 그날, 질레트는 안전 면도기야말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발명 과제라 생각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철물점에서 시계 태엽에 쓰이는 강철 리본, 손줄 등을 사다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발명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날 이발을 하러 갔다가 이발사가 머리에 빗을 대고 머리카락만 안전하게 자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 칼날을 얇은 철판 사이에 끼워 털만 칼날에 닿도록 하면 살을 베일 염려가 없을 것이다.'

질레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해 보았다. 성공이었다. 그는 곧 특허를 출원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공장을 세워 안전 면도기를 생산해냈다. 처음에는 사업자금의 부족,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04년 11월 5일 특허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전 면도기는 남성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면도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질레트 안전 면도기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그후 안전 면도기는 몇 번의 개량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세기 주요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발명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끈질긴 집념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 탄생한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말자!

## 발명 아이디어

### 자동차 문자 표시판

이 아이디어는 자동차 뒤 유리 선반에 문자 표시판을 설치하여 뒤쪽의 차량 운전자가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예비 전원을 뽑아 전선을 차량 바닥에 설치하여 자동차 뒤 유리 선반에 문자 표시판과 연결하고 별도의 ON, OFF 스위치를 대쉬 보드에 부착하여 운전자가 쉽게 스위치를 눌러 문자 표시판 내부의 전구를 켜므로써 운전자가 원하는 글씨가 비춤으로써 뒷차량 운전자에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업성

모든 승용차, 승합차 등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고, 액세서리 겸용이므로 시장성이 넓다.

#### 응용분야

자동차 액세서리 겸용

발명가 : 김정오  
출원번호 : 실출 2001-0029720

## 특허 Q&A

Q 특허출원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수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원관련 각종 통지서는 출원인 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취가 가능한 통지서는 출원, 심사 또는 등록과 관련된 전자문서 형태의 각종 통지서이며 심판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통지서는 과거처럼 종이형태로만 발송하게 됩니다.

통지서 수취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엔 출원인의 경우 출원인정보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단, 특허중이 등록되어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름으로 인하여 등록명인인 표시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처리 후 등록절차를 거쳐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통지일 경우 가. 통지서의 발송일자

온라인 수취 통지서의 발송일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청의 발송서버에 올려놓은 일자, 즉 통지서수신함에 통지서가 최초로 도달하였을 때를 말하며 수신일자는 발송서버를 올려놓은 기간 내에 최초로 다운로드하여 수신 상태가 미수신에서 수신 상태로 바뀐 일자의 통지서를 실제 수령한 일자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 등의 도달일자가 기준이 되어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나. 통지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자 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수취를 못하는 경우로는 통지서 수신함에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청에 전자서명키를 수신 및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통지서수신함에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신하기 바라며,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완료했으나 전자서명키를 청에서 수신 및 등록하지 않는 출원인, 대리인은 전자서명과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여야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수신함 또는 온라인청구교부 수신함에서 통지서를 수신 받을 때 영수증을 만들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전자서명용 비밀번호를 '대소문자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풀어봅시다!

### 가짜 반지를 찾아라!

철수 아버지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낸 문제를 맞출 경우 좋은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철수 아버지가 내주신 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양이 같은 금반지가 2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는 가짜 금반지란다. 진짜 금반지 26개는 무게가 서로 같고, 가짜 금반지는 진짜 금반지보다 가볍단다. 접시저울을 하나 줄 테니, 이제부터 가짜 금반지를 찾아내 보렴. 단, 저울은 3번만 사용해야 한다.'

철수는 몇 번을 고민하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해답은 다음 호에...

[지난 호 문제]  
어느 쪽이 범인일까?

[해답] 범인은 '간다 이치로'이다.  
&는 AND('그리고'의 뜻)의 약자이므로 K&A는 K AND A가 되고, 이것을 붙여 읽으면 '간다'가 된다. 피살자는 만일 KANDA라고 쓰면 범인이 그것을 알고 지울 것을 예상해서 순간적인 기지로 K&A라고 썼던 것이다.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38-2710 / 2702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 발명협회' 앞(우편번호 135-980)  
e-mail: kwia@inventor.or.kr

**[광고문어]**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